

이재석 개인전

《경계선》



〈A형 텐트〉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227.3x162.1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이재석 개인전 《경계선》

전시기간 : 2021년 3월 9일(화) – 3월 30일(화)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9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3월 9일(화)부터 3월 30일(화)까지 이재석 (b. 1989, 대전) 개인전 《경계선》을 연다. 2021년도 1분기의 두 번째 전시며,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작 회화 9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군용 텐트와 수술용 나사, 기계 부품 등 비인간적 소재들로 구성된 초현실적 화면을 선보인다.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화된 조직 속 상처 입은 개인의 인간성에 대하여 고민했다. 그로부터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대상의 경계를 이루는 것들을 그리는 작업으로 나아갔다. 무거운 서사를 청량한 색감의 동화적 화면으로 풀어낸 점이 두드러진다. 1989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응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대전), 갤러리뫼(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대전시립미술관(대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스페이스K(과천)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2. 작품 소개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원뿔>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40.9x27.3cm



<캠핑>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x72.7cm



<겹쳐진 텐트>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2x130.3cm



<풍당풍당>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27x22cm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3. 작가와의 대화

Q. 근작 회화의 소재들은 어디에서 왔나.

개인적인 서사가 근작 회화의 맥락을 관통한다. 군대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경험을 자주 떠올린다. <원뿔>(2020)의 화면 전면에 등장하는 형상은 뾰족하고 차가운 수술용 나사를 상징하는 도상이다. 당시 거대한 병동, 침상 위에 가지런히 누운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계화된 개인의 인간성에 대하여 생각했다. 곧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대상의 경계에 놓인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갔다. 몸과 사물, 삶과 죽음, 개인과 단체의 관계에 대해서다. 군용으로 사용되는 <A형 텐트>(2021)는 안과 밖, 나아가 자연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경계를 이루는 대상이다. 대상 사이를 차단하는 가림막이지만, 두텁고 견고하지는 않아 둘 사이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두 대상을 분리하는 동시에 연결 짓는 소재다. <캠핑>(2020)에는 텐트를 비집고 나온 발을 그려 넣었다. '경계선'으로서의 소재를 강조하려 했다.

Q. 비인간적 소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 점이 흥미롭다.

군용 텐트를 순서에 따라 조립하며 그 구조의 안팎에 놓인 '나'에 대해 고민했다. 텐트를 이루는 부품들은 단독으로서는 쓸모없는 존재다. 개별 부품들은 비상시 설치와 운반에 용이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자신의 모습을 정제했을 것이다. 완성된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천이 마치 사람의 피부 같았다. <겹쳐진 텐트> (2020)에서 보이는 것처럼, 얇은 막으로 내면을 숨긴 채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텐트의 형상이 유기체의 몸처럼 느껴졌다. 화면에 등장하는 텐트들은 땅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하며, 그러므로 유동적이다. <부품들>(2021)에 등장하는 기계 부품들 역시 군대에서 충기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교육을 받으며 발견한 소재다. 작은 쇠덩어리들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를 신체의 장기에 빗대어 봤다.

Q. 소재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한다. 화면 구성에서도 수직, 수평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근작 회화에서 소재의 수직적인 나열과 전면 배치가 두드러지는 까닭은 주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군대 및 사회의 특성을 내비치고자 수직, 수평의 구도를 주로 잡았다. '정렬된 신체'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단순한 도형과 도상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화면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A형 텐트>의 화면 상하부에 보이는 도상의 반복 나열은 주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장식적인 요소로서 역할한다. 고전 회화에 관심이 많다.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William-Adolphe Bouguereau)의 화면이 드러내는 안정적인 대칭 구도와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기하학적 구성을 좋아해 영향받았다. 화면의 서사와 별개로 표현에 있어, 구성과 색채가 드러내는 균형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4. 작가 약력

이재석

- 1989 대전 출생
- 2015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 2019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 2021 이재석: 경계선,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20 정렬된 세계, 갤러리M, 서울
- 2018 아트랩대전, 이용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대전
- 2017 재개발: 영역, 홀스톤 갤러리, 대전
- 2016 어텐션, 이공갤러리, 대전

단체전

- 2020 코쿤 2020: 스쳐 지나간다, 스페이스K, 과천
- 2019 넥스트코드 2019,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함께 걷다, 아트센터큐, 대전
동시대미술가들의 항해술, 이공갤러리, 대전
포스트 프로젝트 2019, 목원대학교 미술관, 대전
- 2018 대전의 기수, 오원화랑, 대전
제3회 헤드라이트, 보다아트센터, 대전
회화의 발언, dtc갤러리, 대전
제3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2017 팝업랩,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회화의 발언, 대전예술가의집, 대전
대전의 기수, 오원화랑, 대전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 중동 작은 미술관, 대전
- 2016 오리지널~진, 대전예술가의집, 대전
도안동행(道安同行), 문화공간 주차, 대전
쉬다가, 홀스톤 갤러리, 대전